

테이저건 제압하자 인권위 진정...경찰 '물리력 행사' 도마위

5차례 경고에도 칼 내려놓지 않아 테이저건으로 제압 인권단체 '공권력 과잉 행사 넘어선 국가의 폭력 사태'

광주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일면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현장 대응 과정에서 경찰의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법이 시행된지 5개월이 넘었지만, 일선 경찰들은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라고 목소리 냈다.

6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4일 외국인 혐기 소지자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부역갑을 들고 돌아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베트남인 A(24)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5차례 경고에도 A씨가 부역갑을 내려놓지 않자, 테이저건을 쏘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인권단체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라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단체는 "경찰 법 집행 정당성 확보를 위한 기준 규칙에 따르더라도 이번 경우는 공권력 과잉 행사를 넘어 국가 폭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위험한 사람에 대한 범죄 억지력이 폭력으로 변질된 상황을 국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방패막이 삼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권위 진정 등이 이어지면 결국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 C씨는 "경찰이 베트남어로 경고하지 않았다거나 테이저건을 쏘다는 이유만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데, 현실과 동떨어진 비판"이라면서 "상대방이 외국

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5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칼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마약 사용 등 특수한 상황이라고 인지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흥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쏘았다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인권위 진정을 비롯해 추후 추가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의 또 다른 경찰 D씨도 "제압해야 하는 대상이 흥기를 들고 위협한다면 곧바로 그에 상응하는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내 후배나 동기 중에도 과잉 진압을 이유로 징계나 소송에 휘말린 사례가 많다"며 "그런 사례를 접할수록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경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칙대로 일해도 규칙이 보호해 주지 않는 상황에 시달리고,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동네 아저씨라고 조롱 받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

장에서 대응하도록 돼 있다.

규칙을 보면 상대방 행위의 위해성 수준에 따라 ▲순응 ▲소극 저항(비협조적) ▲적극 저항(공무집행 방해) ▲폭력적 공격(완력 사용해 체포 회피) ▲치명적 공격(총기 등 이용해 위력 행사)의 순서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경찰이 각각 ▲수갑 ▲경찰봉 ▲분사기 ▲전기 충격기 ▲권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적극적인 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는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됐다. 현장 경찰관은 긴박한 상황에서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줌도 고의·중과실이 없고 수행이 불가피했다면 정상을 잠적해 형사책임을 감경 혹은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여전히 해당 규칙이나 법률이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칙대로 대응해도 사후 민사 소송이나 인권위 조사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최근 전남 여수에서는 20대 남성이 한 파출소 문 틈으로 화살총을 쏘고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남성은 약 12시간 뒤 파출소와 5km 가량 떨어진 주거지에서 체포됐지만, 사건 당시 근무하던 경찰들은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법 집행에 따른 결과들은 정부, 특히 경찰 조직이 책임을 져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무집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지금은 제대로 일을 해도 죄가 되고, 자신의 혐의 없음을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건부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테이저건이나 총기 등 적절한 대처가 오히려 금기시되는 경찰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이라면서 "경찰이 합법적으로 정당한 적법 절차에 의해 집행했다면 그로 인한 사건 사고는 조직이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임행택기자



먹거리 가격 부담, 착한가격업소 주목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착한가격업소'가 주목 받고 있다.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 가정식백반 식당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마크가 붙어있다.

받은 술 마신 30대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마약 의심

술 건넨 남성 손님도 사망한 채 발견...사인 마약 추정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이 남성 손님이 건넨 술을 받아 마신 뒤 사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술에 마약 추정 물질이 섞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성에게 술을 제공한 손님도 마약 투약 후 숨진 것으로 보여 경찰은 두 사건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가 전날 오전 5~7시경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흥주점에서 20대 남성 손님 B씨에게 마약이 섞인 걸로 추정되는 술을 받아 마신 뒤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3차례의 소방 및 경찰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술을 마신 A씨의 상태가 좋지 않자 당시 이를 목격한 유흥주점 동료가 오전 7시54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가 마약류 시약 검사 및 병원 후송을 거부해 이들은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다.

주점 관계자가 A씨 상태를 우려해 오전 10시34분에도 소방에 신고, 112 신고도 오전 11시15분께 한 차례 더 접수됐지만 A씨는 오전 10시20분께 이미 자택에서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손님 B씨의 사인도 교통사고가 아닌 마약류 의심 물질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술자리를 마친 뒤 혼자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던 중 인근의 한 공원에서 교

통사고를 내 당일 오전 8시30분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남성의 차량엔 마약으로 추정되는 봉투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마약류 의심 물질이 섞인 술을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일행이었던 남성 손님 3명과 술자리에 있던 여성 종업원 등 주점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시 다른 여성 종업원들도 이들과 함께 술을 마셨으나 아직까지 다른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술자리에 있던 손님들과 주점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여성이 모는 차 20분 이상 뒤쫓아간 30대 만취운전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며 앞서 달리던 여성 운전자를 뒤쫓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6일 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5분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

코올농도 0.139%인 상태로 차량을 몰며 앞서 달리던 여성 B씨의 차량을 20여분 간 뒤쫓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줄곧 뒤따라오는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출동한 경찰차를 피해 50여m가량 달아나다가 인근 교차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서 달리던 차량 전 조등이 꺼져 있어 알려주자 따라간 것"이라며 스토킹 관련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침을 검토한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운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